

라운아띠 12기 인도 뭄바이팀 산띠 월간보고

# AP GESE HO? SHANTI : OCT. 잘 지내? 평화 : 시월호.



SHANTI, 잠시 같이 쉬어가기



잠시만요!  
10월은 산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 가실게요!!

# 산띠의 10월 일정표

28	29	30	1	2	3	4
*DCC : 까마티푸라의 DAY CARE CENTER (지역 아동 센터) *BHC : 안데리의 BOY'S HOME CHILDREN (보이즈 홈) *JSC : JUHU Centre (주후 센터) *EPC : END POVERTY CAMOIGN (빈곤 퇴치 캠페인)			가르바 축제	간디 자얀티	회의	DCC
5	6	7	8	9	10	11
휴식	이사 -> 안데리	안데리 둘러보기	JSC	EPC 회의	BHC	JSC
12	13	14	15	16	17	18
휴식	BHC	DCC	EPC 준비	BHC	← EPC →	
19	20	21	22	23	24	25
휴식	힌디어 수업	DCC	신전탐방 (구르드와라, 슈리, 하리 크리슈나)	디왈리	새해	캠프 미팅
26	27	28	29	30	31	1
휴식	캠프 준비	←		디왈리 캠프	→	

지금부터 산띠의 **10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 산띠의 이 사람은?!



먹어는 봤나?  
딸기맛 쿨픽은  
진리지!!

두 달 동안 서로를 많이 알아버린  
“산띠”의 “이 사람”은?!

# 산띠의 이 사람은?!

## 로산/ROSHAN



- 특징 : 제일 일찍 일어남, 한국 음식보다 인도 음식이 더 잘 맞음, 청소는 거의 매일 하지만, 씻는 걸 종종 깜빡함!
- 자주 하는 말 : (회의에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나눔에서) 건강합니다.
- 자주 듣는 말 : (거실에서 자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자!  
로산, 너 괜찮아?!
- 별명 : 거괴(거실 괴물), 가정부, 로산 삼촌, 어색한 미소
- 좋아하는 것 : 인도의 모든 것들(문화, 음식, 사람 등!!), 하얀색



# 산띠의 이 사람은?!



- 특징 :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가졌으나,  
잠이 많아서 **부팅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림**
- 자주하는 말 : 아니거든요!  
**양야치야?!**
- 자주 듣는 말 : 찬드 **어디 갔어?**, **찬드** 아직도 **자?**
- 별명 : **토괴**(=토마토 괴물), **멜빈 빠**(돌이)
- 좋아하는 것 : **토마토**, 망고, 살무사(빵), 농구, **빨간색**



**찬드/CHAND**

# 산띠의 이 사람은?!



쿠시/KHUSHI

- 특징 : 회계를 담당하고 있어서 꼼꼼한 것 같지만, 실상은 엄청난 덜렁이
- 자주 하는 말 : 나 그거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 자주 듣는 말 : 쿠시 나히 쿠시 헤이.(쿠시는 행복하지 않아.)  
까르딕이 그렇게 좋아?
- 별명 : 요괴(요구르트 괴물) 쿠시 나니지(할머니), 진슨 빠(순이)
- 좋아하는 것 : 까르딕, 까르딕, 까르딕 까하~♡, 파란색





# 산띠의 이 사람은?!



- 특징 : 뭐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똑같이 살아가는 지야!!**  
    **같지만, 그녀만의 라이프 스타일은 강력하다!**
- 자주 듣는 말 : 지야, **너 피곤해?**, 지야, 아까 그거 **챙겼어?**
- 자주 하는 말 : **아 귀찮아**, 이따가 씻어야지~, 아.. 그거 어디 있지?,  
    니 생각이 그렇다면, **나를 설득시켜 줘!**
- 별명 : **주괴**(주스 괴물), **지야레지야레**(인도 노래 가사)~!
- 좋아하는 것 : 100% 천연 과일주스, 천연 세안 제품, **초록색**

**지야/JIYA**



인정 안 해?  
양아치구만!?

저건 내가  
아니라구TT

너  
맞아요!!

100%이상  
지야(Jiya)임!



# 산띠의 이야기



브이 포즈는  
나의 트레이드  
마크에용~!

산띠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모든** 것을  
모은 **이야기** 들~!

보이즈 홈의 아이들과 함께 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한 달은 아니었다. 우리가 안데리 와이엠씨에이(Andheri-인도 와이엠씨에이 지점 중에 하나)에 도착하고 난, 한 주 뒤부터 아이들의 시험 기간이었고,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시험공부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이 친구들의 공부에 방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공부를 하는 시간에 우리는 다른 일과를 진행하거나, 회의를 하면서 우리에게 여유가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쓰려고 하였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어느 정도는 반드시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해진 플레이 타임 시간(오전 9시30분 ~ 10시30분 / 오후 5시30분 ~ 6시30분, 2타임)에

는 같이 농구 또는 축구를 하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아이들의 시험공부를 옆에서 도와주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아이들과의 식사시간과 등교시간에도 우리는 옆에서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이들과 보내는 모든 시간은 무언가를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같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좋았고, 즐거웠다.** 그래서 때로는 굳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욕심처럼 느껴졌다.** 아이들과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2가지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 하나는 식사시간에 우리에게만 다르게 나오는 특식에 관한 것이다. 식사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먹지만, 우리에게만 아이들이 평소에 먹지 못하는 치킨, 또는 바나나를 매 끼니마

다 요리사 도낙 삼촌이 챙겨준다. 우리를 생각해서 주는 삼촌의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아이들과 같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우리만 주는 것에 우리와 아이들 사이에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였다.

다른 하나는 식사 후 식당 청소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청소를 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너희들은 손님이라서 청소를 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청소하는 것을 극구하게 말렸다.



우리는 여기에 손님이 아닌 친구로서 이 친구들의 삶에 같이 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은 우리를 손님으로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우리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삼촌과 알렌(Allen- 안데리 YMCA의 지점장)에게 더 이상 특식을 주지 않기를 조심스럽게 부탁(호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게)하였고,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들과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당 청소를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손님이 아닌 같이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친구로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듯이 아이들도 우리에게 관심이 정말 많았다.** 식당에 누구 한 명이 늦게 오면 안 오는 멤버를 항상 찾아주고, 중간 중간에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 지 등을 계속 물어보고, 만날 때마다 웃음으로 대해주는 친구들에 친근감을 느낀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이들과 점점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

지난 달 우리는 센터 앞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잠시 접고, 그 곳에 사는 마을 주민들에게 다가가고자 마음 먹었다. **뭔가를 하려고 하기 보다 친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자 우리들의 마음은 다소 편해졌다.** 우리는 DCC 안에서 뛰어 놀고, 같이 밥을 먹고, 때로는 같이 누워서 잠을 자며 나름대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부모님들께 인사를 하고, 그림 수업을 받는 소녀들과 야간 학습을 하러 오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대부분 아파트나 아파트 근처에 살고 있었다.

### 신발 벗기 캠페인(Take off Shoes Campaign)

문 옆에는 큰 알림판 하나가 걸려 있다. 힌디어와 마라하띠어로 **“신발을 벗고 들어오세요.”** 그와 비슷한 알림판이 센터 안 신발장 위에 또 하나 걸려 있다. 신발장에서부터 화장실까지는 신발을 신고 지나다닐 수 있는 초록색 매트가 깔렸고, 가구들 몇 개가 옮겨져 DCC 아이들과 발와디 아이들을 구분시키는 선이 만들어졌다.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공간과 신발장은 노란색 페인트로 함께 칠했다.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 전에는 센터를 두 차례 물청소 하였다. 신발을 벗어달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었다. 이 캠페인을 돌이켜보면서 무수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중요한 배움이었던 몇 가지만을 소개하려고 한다.

**첫째는 이 캠페인으로 추구하는 목적이다.** 아이디어의 출발은 센터를 방문하는 어른들이 바깥에서 신고 다니던 신발을 그대로 센터 안으로 신고 들어오는 것이 센터를 더욱 더럽게 만들고 아이들의 위생에 해롭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맨발로 센터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라온아띠라는 한국인이 다시 이 마을에 찾아왔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작은 인사였다.** 더군다나 이 캠페인은 내부 환경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서 외부 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위생 때문에 이 캠페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진다. 하지만 이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던 봄베이 YMCA와 DCC 담당자들과 공유한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주된 이유는 아이들의 위생 문제였다. 그렇다면 이것이



# 산띠의 이야기

## 지역 아동 센터 (DCC : Day Care Center)

우리 모두의 캠페인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라면 이 캠페인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위생 문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갔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언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위생은 캠페인의 얼굴이고, 인사는 캠페인의 내면이었다.**

**둘째는 함께 진행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DCC 이용자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수했던 점은 우리의 캠페인이고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점이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계속 고맙다고 말하자 진수는 **“고맙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일을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로 우리 생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다. **‘우리 모두의’ 캠페인**이라고!



# 산띠의 이야기

## 지역 아동 센터 (DCC : Day Care Center)



사실 함께 진행하는 것은 많은 의견차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가구를 옮기는 문제는 우리가 공간 활용과 아이들의 동선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비해 DCC 담당자는 **발와디와 DCC 공간을 구분 짓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이용자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따랐다.** 이 때까지 그 공간을 사용했고 앞으로도 사용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셋째는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예로 우리는 화장실에 욕실화를 두고 싶었지만 욕실화를 두지 못했다. DCC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도 상당수이다. 그 사람들이 화장실을 자신들의 신발을 신고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 역시 그리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화장실 앞에 두 개의 욕실화를 두려고 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도 사람들은 욕실화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스태프들은 욕실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는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하고 욕실화에 대한 제안을 빠르게 접었다. 또 다른 예는 신발을 신는 사람들을 구분 짓는 매트를 모두가 이용한다는 점이다. 화장실을 잠깐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다시 신발을 신고 화장실을 가는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DCC 총 담당자의 피드백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발을 벗는 내부와 신발을 신는 구역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커다란 매트를 깔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매트를 신발을 신는 사람 뿐만 아니라 신발을 벗는 사람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실내의 깨끗함 유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바비 디디(DCC에서 요리와 청소를 하시는 분)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매트 위에 올라서야 하고, 이 매트에 올라서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기 힘든 발와디(유치원) 아이들은 매트 위에서 맨발로 뛰어놀기도 한다.

**매트 위에 올라서면 안 된다고 단호히 구분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 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센터를 방문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DCC 담당자, 발와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주고 계시고 함께 깨끗한 실내를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꺼내는 작은 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 아이디어를 풍성하게 구체화시켜준다.** 신발 벗기 캠페인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목적을 나눠서 모두 다 함께 깨끗한 실내를 위해 노력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한 번 감사했다.

### 그 이후, 한국 음식 파티(Korea Food Party)

신발 벗기 캠페인 이후에 까마티푸라 커뮤니티에 대한 작업을 어떻게 추진할 지 다시 한 번 회의를 가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까마티푸라에 가는 목적을 재확인하기 위한 회의였다. 팀원들 모두 까마티푸라 커뮤니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작업에 아직도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 열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방문하자는 이야기부터 방문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파트를 방문할 때 화분을 만들어서 가자는 이야기와 차라리 바깥에 화분을 두자는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그러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먹으면 어떠냐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다. 처음 아파트를 방문할 때는 간단한 소개만 하면 되지만, 다음 번에 아파트를 방문할 때는 이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의견이 꼬리를 물었다. 음식을 나눠 먹고, 그 이후에도 아파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12월 즈음에는 외부 환경과 커뮤니티의 고민을 들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총 미팅을 가질 계획이다.



다음달 첫째 주 화요일부터  
아파트 방문이 시작된다. :D

지난 달 YMCA 브런치와 센터들을 견학하면서 **주후 스트리트 칠드런 센터(Juhu street children Center 이하 주후 센터)**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온 사이트**였다. YMCA의 소유도 아닌 건물, 좁고 낡은 시설,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해변의 샤휄장 옆에 딸린 작은 방에서 살고 있는 **열여덟 명의 친구들**을 위해 우리는 뭔가 해야 한다고 느꼈고, 할 수 있다고 불탔었다. 때문에 안데리 옮기자마자 일주일에 2번 주후 센터에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우리가 주후 센터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직접 기획하여 진행해보고 싶은 욕심이 컸고 독립된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주후 센터의 운영방식과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도 하고, 봄베이 Y의 간사들이 주후 센터를 방문하는 자원활동가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언하여 첫 주는 볼렌티어들이 많은 요일에 주후를 방문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철저하게 약속대로 주후 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었고, 대학교의 시험기간과 디왈리라는 인도의 큰 축제이자 공휴일이 있는 주이기도 해서 자원활동가들은 주후 센터를 방문하지 않았다. 우리가 주후 센터에서 무엇을 할지 한번도 논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후 센터 친구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아이들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인도 스포츠인 크리켓을 알려주고, 체커스라는 보드게임을 가르쳐주었다. 주후 센터의 디왈리 축하행사에 우리를 초대해 디왈리를 기념하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자신의 폭죽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인도 노래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주후 해변에서 진행한 캠페인 데이에는 오히려 주후 센터의 친구들이 우리를 도왔다. 다 마련되지 못한 준비물을 바쁜 우리를 대신해 사다 주고, 함께 종이를 자르고, 책상을 옮겨주고 우리의 캠페인이 끝날 때까지 캠페인장소에 함께 있어주었다.



처음 열악한 환경을 보았을 때에는 무언가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수많은 도움을 받았고 **주후센터의 친구들은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다음 달 계획을 위해 한 달의 주후센터에서의 생활을 돌아보았으나 우리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고, 함께 즐기고 노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면 우리가 더 필요한 다른 사이트로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산띠 모두가 이미 주후센터 친구들과 정이 들었고 사랑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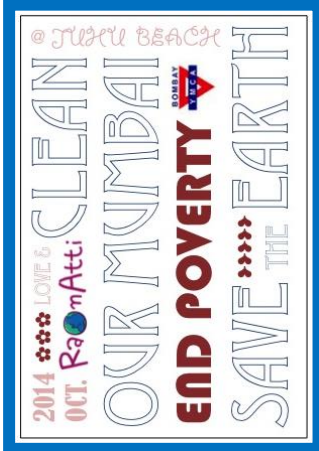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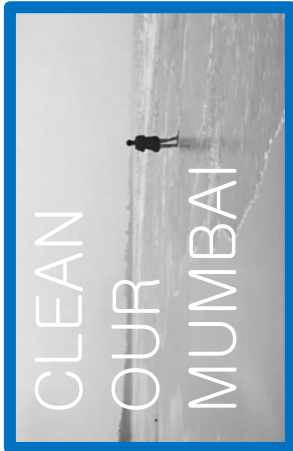
우리는 무언가 그들을 위한 도움을 주고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접기로 하였다. **주후센터는 우리가 무언가 줄 수 있고,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배우는 곳이다.** 우리는 그 곳에서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고, 함께 있기에 느낄 수 있는 안도와 평화, 행복을 깨닫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배움이야말로 라온아띠가 되는 과정이며, 주후센터를 만난 것은 우리의 행운이다.** 우리는 국내훈련에서 꼭 무언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인도에 미국 청년들을 보내 뒀겠다는 케네디대통령에게 인도의 네루수상이 미국의 청년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었다. 어느새 그 말들을 많은 도시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뭄바이라는 도시와 봄베이 Y의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잊고 있었으나 주후센터가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가르쳐주었다. 이사와 캠페인, 캠프 준비 등으로 바빠 주후센터에는 아무것도 준비하고 가지 못한 우리를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함께 즐겁게 뛰어 노는 **주후센터의 친구들에게 고맙고, 그런 고마움을 전하고자 다음 달부터는 우리도 재미있는 게임을 준비해 알려주며 더 즐겁게 놀 계획이다.**

### “깨끗한 우리 뭄바이, 지구를 구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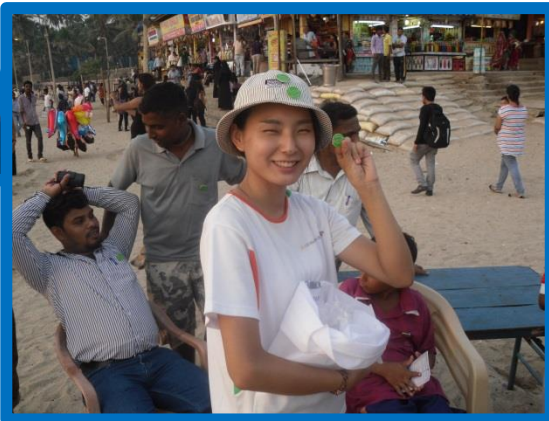
한 달 간의 인도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기에 캠페인 주제를 잡기 위한 회의는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집 없는 아이들(Street Children) 문제, 성 문제, 야간 자율 학습 공간 문제, 쓰레기 문제, 직업과 상관 없는 존중 문제, 모든 카스트들이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나 대부분 짧은 시간 동안 외국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거나 가능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폐기 되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로 자주 목격하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했을 때 우리는 결국 **쓰레기 문제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뭄바이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문제의 원인은 '인식의 빈곤'이라 생각한다. 누군가 이 곳에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버려도 된다는 인식은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드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덧붙여 이 도시의 거리와 바다를 자신의 집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서 '나'로부터 실천하는 삶을 말하고 싶었다.





캠페인 기념품으로는 Clean Our Mumbai가 적힌 녹색 뱃지, 이면지 노트 그리고 주후 비치의 아름다운 사진과 캠페인 관련 문구로 만든 두 가지 종류의 엽서를 전달하였다.



캠페인은 주후 비치에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리의 캠페인 주제가 적혀 있는 커다란 현수막 좌우로 **다짐의 벽과 사진전**이 위치하고, 그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춤**을 춘 뒤 **카드 게임**을 하는 구조였다. 캠페인을 이루었던 네 가지 부문을 돌이켜봤을 때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쉽게 유도할 수 있고,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쓰레기 버리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춤'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추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쪽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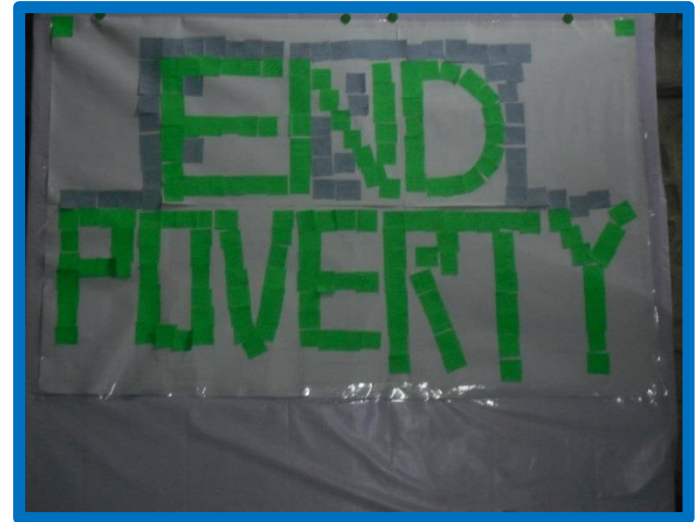
이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캠페인 시작 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춤 바로 뒤에 이어졌던 '카드 게임'은 각 종류의 쓰레기가 땅 속에 묻혀 썩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지를 맞추는 게임이었다. **참여자들에게는 상품으로 라온아띠가 직접 수작업한 이면지 노트**를 나눠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에 흥미를 가지고 우리의 상품을 좋아했다. '사진전'은 깨끗한 우리 뭍바이라는 캠페인 주제를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문이었다. 사진전에서 과거의 아름다운 주후 비치와 현재 쓰레기로 오염된 주후 비치, 바다, 뭍바이 거리를 나란히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짐의 벽'은 깨끗한 뭍바이에 대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간단한 약속을 작은 종이에 적어 'END POVERTY(빈곤 퇴치)'라는 큰 글자를 채워 가는 부문이었다. 몇몇 사람들의 이 도시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정도였다. 우리의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다. YMCA 스태프들의 지지와 도움은 우리가 좋은 사회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한 팀이라는 느낌을 주었고, 캠페인에 대한 사랑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빈 곳을 알아서 찾아가며 부족한 부분을 매꿔 나갔다. 그렇지만 돌이켜 봤을 때 아쉬운 점들이 자꾸 우리 발목을 붙잡는다. **우리 캠페인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이다. 먼저 우리는 캠페인 주제를 잡기 전부터 Youth와 상의해서 계획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우리 안의 대화가 많았을 뿐**이다. 캠페인 당일 자원활동가 친구들이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몇 명이 필요할 지 예측하지 못했고 그들과 만나서 **사전 미팅을 가지지 못했다**. 만약에 우리가 캠페인에 필요한 인력을 예상하고 그들과 만나 캠페인에 대해 설명했더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빈곤 퇴치와 깨끗한 뭍바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왜 이 날 이런**

**캠페인을 열었는 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 날 우리와 함께 해주었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생각은 아쉬움에만 머무를 수 없다. 당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활동가 친구들은 너무나도 능숙하게 우리 캠페인 진행을 도와주었다. 비디, 답티, 마니쉬, 삼슨, 로한 모두 오래된 친구 같았다. 봄베이 YMCA 관계자인 멜빈, 바스커, 리차드는 캠페인 뒤에서 묵묵히 우리를 도와주었고, 이틀동안 자진해서 사진전 설명을 맡아주었던 **라파엘에게는 특별히 더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바로 지금 여기서 '나'로부터 실천하는 삶을 말하고 싶었던 캠페인은 한 사람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인도인이 자신의 형제이며 자매이기에 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해주어서, 쓰레기가 이렇게 안 썩는다니 거짓말이다라고 말해주어서, 빈곤 퇴치의 날을 알게 되어 기뻐해주어서, 길가에 버리던 쓰레기를 다시 주워 쓰레기통에 버려주어서, 단지 우리 캠페인 앞에 걸음을 멈춰 주어서 우리의 부족했던 면이 채워졌다. 그 한 사람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다짐의 벽, 글자의 완성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 졌다.,



# 산띠의 이야기

## 디왈리 캠프(Diwali Camp)

봄베이 YMCA에서 주관하는 캠프로써 여름에 1번, 가을에 1번 일 년에 두 차례 이루어지며, 가을 캠프의 경우 디왈리 축제로 인한 휴일 기간에 이루어지기에 디왈리 캠프라고도 불리고 지역 이름이 날시이기에 날시 캠프라고도 불린다. 캠프 참가자들은 주니어(8-11살)와 시니어(12-14살)로 나누어지는데 지야와 찬드는 시니어 그룹 자원활동가로, 쿠시와 로샨은 주니어 그룹 자원활동가로 참가하였다.





### 닐시에서의 5일

닐시는 자연으로 유명한 캠프 공간이다. 그 명성에 맞게 우리는 버스를 타고 그 곳으로 가는 도중에 주변을 보면서 냇을 놓아야 했다. 모든 캠프 참가자들이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고, 달과 별이 아름답게 빛나는 닐시의 밤하늘을 사랑한다. 우리 또한 그 곳에 마음을 뺏겼다. 닐시 캠프 프로그램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자연과 만나기, 자신감 키우기, 협동심 기르기**이다. 한국의 청소년들도 그렇듯이 몸바이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도시에서 자라서 자연과 가까이 마주할 기회가 잘 없다. 산 속에 지어진 캠프와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수영이나 밭 가꾸기 같은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연과 단독으로 마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간이었다. 암벽 등반이나 버마 다리 건너기(공중에서 안전 장치를 착용하고 긴 하나의 줄을 건너는 활동), 자기 찾기 프로그램은 **도전과 자그마한 성취로 아이들의 자신감을 높여주었다**. 잘린 대롱으로 구슬 옮기기 게임이나 대나무를 이어 팀원을 옮기는 게임은 **아이들에게 협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



# 산띠의 이야기

## 디왈리 캠프(Diwali Camp)



아이들은 남을 탓하거나 남과 경쟁하는 것이 의미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함께 가야 하는지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했다.** 프로그램 속에서 아이들이 원활하게 성공하도록 자원활동가들이 돕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 오히려 아이들이 답은 알지만 정확한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디더라도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 혹시 실패할 수 있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자원활동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임을 깨달았다.

**5일 동안 많은 자원활동가 친구들과 스태프들이** 우리가 겪는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언어라는 장애물을 이해해주고 **캠프에 적극적인 참가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캠프에서 주어진 시간보다 보다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눴던 에너지와 서로에 대한 관심이 날시의 자연만큼이나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 라온아띠 프로그램

캠프에 참가한 라온아띠는 프로그램 한 개 정도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얻는다. 우리는 **손 잡고 풍선 옮기기 게임**을 **팀워크를 위한 준비운동 게임**으로 한 후 본격적으로 런닝맨 게임을 진행하였다. 런닝맨 게임은 한국 TV 프로그램 런닝맨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 게임은 거대한 캠프의 공간을 활용하는 데 최적화 되어 있었다.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공을 많이 찾는 것과 상대방의 이름이 적힌 천을 빼앗는 두 가지 경우로 아이들이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머리를 쓰며 뛰어돌게 만들 수 있었다. **많은 캠프 참가자들과 자원활동가 친구들이 우리 게임을 좋아해주고 함께 즐겨주었다.** 그 함께 하는 웃음 뒤에서 우리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남몰래 신음을 흘려야 했다. 게임 진행 전날과 당일에 와서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자원활동가들에게 게임을 이해시키기란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사전에 게임 안내지를 전달한 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피곤하고 바쁜 캠프 일정 속에서 충분한 설명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서, 게임 중간중간에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 산띠의 이야기

## 디왈리 캠프(Diwali Camp)



리허설 또한 불가능했기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 패자부활전 게임을 너무 늦게 진행해 아이들이 부활의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가지 못했고, 숨겨진 공을 너무 못 찾아 직접 가르쳐 줘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전 준비 과정 속에서 보다 철저하게 가능한 문제상황을 예상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다음부터는 최종 점검을 확실하게 하기로 다짐했다.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프로그램에 호응과 칭찬을 아끼지 않아준 캠프 참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한다.



### 친구 집 방문

인도에는 각 집을 전등으로 꾸미고 폭죽을 터트리며 즐기는 **디왈리(Diwali) 축제(10월 23, 24일)**라는 큰 축제가 있다. 축제가 있기 일주일 전 쯤 우리도 디왈리 축제를 현지 사람들과 즐기고 싶다고 제안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안데리(Andheri) YMCA 담당 간사인 알렌은 디왈리 축제 당일, 한 자원활동가 친구 집을 방문해 축제를 즐기도록 권유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친구였고 우리는 자원활동가 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망설여졌다. 우리는 디왈리 축제기간을 어떻게 보낼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그 친구의 불편함을 함부로 추측하긴 어렵다는 의견부터 그 친구가 알렌의 제의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 친구가 축제를 즐기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양한 고민이 오갔다. 고민을 나눈 끝에 우리는 알렌에게 친구 집을 방문하기 전 **우리가 먼저 그 친구를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 덕분에 조금 더 일찍 자원활동가 친구들을 만나며 가까워질 수 있었고 우리는 친해진 상태에서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디왈리 축제 기간 때 우리는 친구와 상의를 통해 집을 방문하는 대신 **템플 탐방**을 하였다. 앞으로 우리는 친구가 된 다음 자연스럽게 초대를 받자고 이야기가 모아졌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친분을 쌓다 보니 우리는 **축제 기간 중 여러 친구들에게서 집으로 놀러 오라는 권유를 받을 수 있었다.**



### 10월의 350 PPM

이번 달에 추가된 우리의 지구를 위한 350ppm 규칙은 “에어컨 사용하지 않기”와 “소프 선데이(SS : Soap Sunday : 비누만 쓰는 일요일)”이다. 지난 번 물 아껴쓰기는 모두가 크게 불편을 겪지 않는 부분이라서 쉽게 실천할 수 있었던 반면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나 비누만 사용하는 것은 팀원들 모두 하나 이상의 약속에서 직접적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는 문제였다. 그러나 논의 끝에 팀원들 모두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 모두의 지구를 위한 행동을 함께 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에어컨의 경우 처음에는 이 곳이 너무 더우니 횡수와 시간을 제한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었으나, 선풍기가 소모하는 전력의 30배 이상을 소모한다는 점과 우리와 함께 노는 아이들은 에어컨을 쓸 수 없는 환경이고 전력소모가 비대칭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에어컨을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에어컨과 절친한 사이였던 로모씨는 **과감하게 에어컨 리모콘 건전지를 제거하고 더위를 덜 타기 위해 다이어트에 들어갔다.**



리모콘 건전지를 제거하는 로모씨

계면활성제가 없는 제품이나 비누만 사용하기의 경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 난감해하는 팀원도 있었고 세제, 샴푸, 클렌징폼, 등 따져볼 수록 실천이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미트리스** **먼데이(Meatless Monday : 고기 없는 월요일)**처럼 **소프 선데이로 일요일을 정하여 재미있게 실천해보자는 아이디어**까지 이어졌다. 첫 일요일에는 안씻고 설거지도 청소도 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비누를 사거나(클렌징폼과 절친한 사이인 찬모씨는 천연비누 가게에서 “**xxx 소프 선데이 때문에 천연비누를 산다**”고 말했다.) 계면활성제와 같은 화학약품이 들어가지 않는 천연 샴푸를 찾아내는 등 **진정한 소프선데이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국 평일에는 세제와 샴푸 등으로 물을 오염시키고 있고 소프 선데이가 완벽한 실천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소프 선데이 덕분에 화학성분이 없고 물을 덜 오염시키는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비록 일주일에 하루더라도 물을 덜 오염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기반하는 것이기에 **앞으로 지구를 위한 더 많은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희망**을 건다.



소프 선데이를 통해 천연 비누,  
천연 샴푸를 더 많이 알게 된 두 사람

### 나의 힌디 이름(My Hindi Names)

이 곳에 온 며칠 후 우리는 인도 친구들로부터 힌디 이름을 받았다. 우리의 특징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등을 이야기 하고 얻은 이름이라 **우리에게도 참 소중한 이름**이다. 이 곳에서 활동하면서 우리가 이 곳에 있는 동안은 모든 부분에서 힌디 이름을 쓰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나왔다. **이 곳 생활에 좀 더 몰입하면서 여기서 라온아띠로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다. 어느덧 한글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힌디 이름을 쓴 지 두 달** 째.

저마다 자신의 힌디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로산

한국에서 가진 내 이름인 **휘준**의 뜻(하이 라이트:가장 밝은 빛)과, 인도에서 이름인 **로산**(라이트: 빛)의 공통점은 “**빛**”이다. 다르게 발음이 되어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전혀 다르지 않다.**

10월의 바쁜 일정을 진행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표정을 지을 때가 종종 있었다. 하루는, 인도 친구 중에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준 친구가 해준 말이 있다.

“**로산,**

너의 어두운 얼굴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넌 빛이야!”**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이름에 담긴 의미뿐만 아니라 내 얼굴 표정, 행동도 밝아야 나는 **온전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인도에서의 매일매일을 밝게, 더 환하게 보내려고 **행동도 빛이 나게 노력하고 있다.**



“**로산, 계속 밝게 웃어~!”**

찬드



찬드와 짤드 사이의 소리인 내 이름!

'달'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의 이름 **CHAND**  
(찬드와 짤드 사이의 소리를 낸다).  
**CHAND**는 달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 인도 친구들이  
선물해준 이름이다.  
나의 삶의 기억들은  
내가 달을 보고 좋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준다.

### 쿠시

“쿠시(행복이)야 너 표정이

쿠시(행복)하지 않아,

쿠시(행복이)야 웃어!!”

이름 덕분에인지 표정 덕분에인지 현지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웃으려고 노력하고 아주 가끔씩 박장대소도 터져 나오는데 왜일까.

더 많이 웃으라는 뜻인가?

웃는 표정을 좋아한다고 해서 얻게 된 내 이름.

이 이름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만 이따금씩 나를 쿠시하게 한다. 모두가 내 이름의 뜻을 설명해주고 미소 지어준다. 쿠시 :) 막상 되돌아보니 **행복한 이름**인 것 같다.

“이름의 행복을 알아가는, 쿠시(행복이)!”



### 지야

처음이다, 다른 이름으로 살게 된 것은.  
어느 나라에 가도 발음이 쉬운 이름이라서  
굳이 현지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  
**유진**이라는 **내 이름을 사랑**하고,  
**유진**이라는 한국인으로서의 **나를 사랑**했기에  
나는 어디에 가도 내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었다.  
그런 나에게, 나의 자기소개를 듣고  
현지 친구들이 지어준 이름, **지야**.  
**“살아 있음”**이라는 뜻의 이름.  
**라온아띠**, **“지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간 지 두 달 째.  
**“지야”**라는 소리를 들을 때 마다  
나는 꿈틀거리는 **희망**이 느껴진다.  
매일매일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을 만났음에 감사하다.**



매일매일 살아있음을, 살아갈 수 있는 이름, **지야**

### 인도 대중 교통

우리가 이용한 인도의 대중교통의 종류는 오토릭샤, 지하철(Metro-메트로), 버스 그리고 로컬 트레인 (Local Train-뭄바이 시내에서 운행하는 기차)이 있다.

**오토릭샤**는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택시와 비슷하데,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뒤에 최대 3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고, 복잡한 **인도의 교통 속에서 빠르게 유유자적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하철**은 우리나라 지하철과 매우 흡사(출입하는 방법과, 탑승하는 방법 등)하고, 엄청 **시원한 에어컨 바람**덕분에 인도의 더위를 잠시 동안 잊을 수 있다.



**버스**는 크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 버스와 비슷하지만, **탈 때는 뒤에서 타고 앞문으로 내린다.** 버스 안에는 목적지에 따라 **요금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

**로컬 트레인**의 경우, 지하철과 비슷하데 출입문이 없어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교통혼잡 시간 때는 출입문에 매달려서 타는 게 일상적**이다.

**버스, 지하철, 로컬 트레인**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여성 전용 좌석**(지하철, 로컬 트레인에는 여성 전용 칸)이 있어서 여자들 이외에 남자가 이용하면,

**룰 브레이커**(Rule Breaker-규칙 위반자)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이 외치면서 비 매너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린다.

# 산띠의 이야기

## 인도의 문화(Cultures of India)

다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산띠 각자의 느낀 점을 달았다.

**로산** : 한국과 비슷하지만 일부분 다름이 있는 인도의 대중교통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이곳에 문화를 이해해 나가는 것처럼, 이곳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곳, 인도에 사는 한 사람으로 나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찬드** : 혼잡한 도시 뭄바이의 출퇴근 시간은 여느 도시와 다르지 않는 “전쟁터”다. 버스와 기차는 혼잡 그 이상이었고 잘못 보면 배려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이른 판단이었고 대중교통이 적응되는 순간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만의 룰이 있고 배려가 깊었다.** 처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여성과 장애인,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해 말하며 노력하고 있었다.**

뭄바이의 기차, 버스, 오토릭샤를 통해 현지 사람들을 느낀다.  
내가 대중교통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

**쿠시** : 여기서 오토 리ك샤, 메트로, 로컬 트레인, 버스 4가지 종류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 같다. **가장 좋아하는 대중교통은 버스이다. 버스에 앉아 창 밖을 바라보면 내가 이 곳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다시 실감하곤 한다. 오토 리ك샤는 천천히 지나가는 풍경과 매서운 바람을 제공하는 멋진 친구이다.**

메트로는 서울의 지하철을 떠오르게 한다. 메트로 안에서 슬럼가가 너무나도 잘 보이는 사실이 어떤 대중은 어떤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되는 기분이 들게 해 조금 불편하다. **로컬 트레인을 타려고 처음 시도한 그 날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매일 10~20명이 떨어져 죽는다는 로컬 트레인. 사람들은 어디로 출발하는 것일까. 그 날 봄비는 기차 안에서 계속해서 병뚜껑 있었던 것 같다.**



**지야** : 다른 뭄바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속절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내가 뭄바이를 스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곳에 발을 단단하게 붙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아라비아 숫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기된 버스번호, 사람이 직접 울리는 종소리, 버스 안으로 뛰어오르는 순간들을 사랑한다.**

### 간디 자얀티(Gandhi Jayanti)

10월 2일은 간디의 생일이다. 인도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 날에는 그를 위한 의식(오전 7:00에 행하고, 이 의식에 참여를 위해서는 미리 표를 구매해야 한다)을 행하고, 그의 집을 찾아가서 그가 남긴 발자취를 보며 그를 생각한다. 우리 또한, **인도 독립운동의 중심이자, 간디의 집인 마니 바반(Mani Bhavan)에 방문하였다.** 마니 바반에서 우리는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간디가 살았을 때 이용한 가구, 간디가 읽은 책들, 간디가 사용한 방, 그리고 간디의 생애를 인형으로 기록한 전시회를 통해서 **간디의 삶과 간디의 업적에**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 보다 더 깊이 알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과 우리 같은 외국인이 간디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보고, **간디는 세계적으로 존중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간디의 집을 방문하고 난 뒤 우리는 **간디가 나아간 길에** 누군가는 그 시대에는 비폭력과 진실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길을 만드는 그가 외로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가 어떤 종류의 책을 읽고,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또한 궁금해졌다. **인도 독립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인도의 역사가 **한국과 상당히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가르바 축제(Garba Festival)

우리는 안데리 브런치(=인도 YMCA의 지점 중 한 곳)에서 열리는 가르바 댄스 파티 (Garba Dance Party)에 참여를 하였다. 가르바는 나오 라트리(Naoratri : 9일 동안 행해지는 인도의 축제 중에 하나 - 나오 라트리라는 신이 인간이 두려워하는 악마들을 물리치면서 그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춤을 추는 데서 유래) 축제에 **친구의 초대를 받아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였다. 흘러나오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사람들이 만든 큰 원과 그 원 안에 또 다시 작은 원을 만든다. 그리고 두 원을 돌면서 박수와 함께 리듬에 맞춰 춤을 춘다. 우리는 안데리의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몸짓과 함께 춤을 제대로 즐기면서 춘다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긴장이 되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원 주위를 돌다가, 인도의 문화에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어설프지만 결눈질을 하면서 조금씩 춤을 추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리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 산띠 중에 **찬드는 이들의 춤에 매료되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신나는 음악에 자기 몸을 맡겼었다. 이 축제는 그 동안 우리가 보고, 설명을 듣기만 한 축제와는 다르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축제를 즐겼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의 많은 축제를 구경하면서, 계속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주후 센터(Juhu Centre)에서 아이들과 같이 디왈리를 축하하였다. 같이 간식을 먹고 마당에서 모든 아이들과 같이 불꽃놀이를 하였다. 불꽃놀이의 종류 중에 하나인 버스팅 크랙커는 500원 동전보다 조금 큰 크기인데 불이 붙고 난 뒤 몇 초 안에 "꽁, 팡!" 소리와 함께 연기를 만들어낸다. 짧은 순간에 내는 엄청난 폭음이라서 가까이에 있으면 귀가 아프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귀가 멍멍한 느낌을 받는다. 종종 길가를 지나거나, 집에 있어도 이 버스팅 크랙커 때문에 깜짝 놀라서 몸이 움찔하고, 밤늦게까지 터지는 이 소리에 잠을 자지 못한다. 우리 중에 누구는 이 소리에 놀라서 버스팅 크랙커보다 더한 비명을 질러서 두 배로 우리의 귀를 괴롭게 했다. 이 비명 소리는 우리를 행복(쿠시)하게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어서 기뻐고, 인도의 문화를 알아갈수록 점점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 해피 디왈리(Happy Dewali)

디왈리(Dewali, 인도의 힌두교에서 행해지는 축제 중의 하나이다. 10월24일은 인도의 Happy new year이고,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축제가 이어진다.)를 맞이해서 우리는 **힌두교 친구들과 함께 힌두의 신전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체험**을 하였다. 구루드와라(Gurudwara, 편자비종교의 신전), 슈리 신전(Shree Temple) 그리고 하리 크리슈나(Hare Krshina, 안데리에 있는 신전 중에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3곳을 방문하였다. 우리는 신전을 탐방하면서 힌두의 많은 신들을 알게 되었고, 신들의 다양한 스토리와 신전에 대한 설명을 친구들과, 그리고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Messenger-메신저,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에게서 들었다. 신전을 탐방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힌두교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에 자부심 또한 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10월 24일에 하리 크리슈나에서 새해를 축하하는 자리에 우리도 같이 옆에서 의식에 참여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곳에서 준비한 음식을 같이 나눠먹었다. 우리는 **신전 탐방의 경험을 통해서 인도 문화의 깊이와 지혜를 알 수 있었다.**





# 개인 에세이



자연스러운  
내 모습,  
사랑스럽지  
않나요?

사람 냄새를 풍기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공간!  
그들은 이번 한 달을 어떻게 보냈을까?

# 시월의\_로산(ROSHAN)

한 낮의 시월의 매정한 열기에 지치는 일이 많았었는데, 무덥고 강렬했던 햇빛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해지고 있었고, 믿기 어렵겠지만 인도는 지금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겨울보다는 많이 따뜻한 편이지만 전보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은 확연히 짧아졌다. 밤바람은 기분 좋게 서늘해져 거리에는 아이와 아빠, 또는 엄마와 같이 손을 잡고 움직이는 가족들의 모습, 해변 근처의 커플들이 잠시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로산이 인도에서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달이 넘어 가는 동안, 정말 많이 짧지만 힌디어를 조금씩 사용하고 있고, 인도의 축제를 접하면서 그 문화 속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여 가면서, 매일 새로운 것을 마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내일이 빨리 오기만을 바라고 있다. 인도에서의 생활은 생각 이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잠시 멈춰 주변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시장에서는 물건 값을 깎으면서 흥정을 할 줄 알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지리를 익히면서 어느 곳에 무엇이 유명하고, 필요한 물건은 어디에 가면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렇게 나는 **인도에서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인도 사람**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처음 한 달을 보내면서 인도에서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생각하고 다짐을 했었다면, 이번 한 달은 그런 바람을 가진 내 모습을 만들기 이전에 나란 사람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인도에서 나는 생활이나 일이나, 모든 방면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면서 생긴 의문점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고민들로 이어졌다.

이곳, **인도에 나는 왜 오게 되었고** /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 나란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고 / **라운아띠**로서 내가 취해야 할,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 **아시아의 친구**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 나를 친구로 대하는 그들에게, 반대로 나는 **그들을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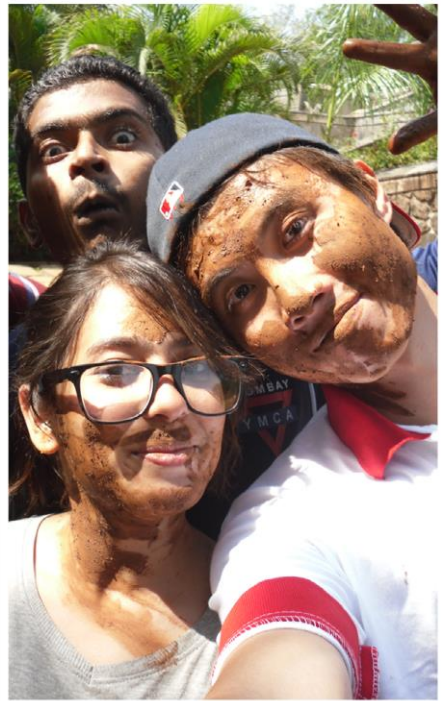
**정 친구로 바라보았는지...**를 나 혼자만 들어 갈 수 있는 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물어보고, 그 고민에 해답을 찾아 기분이 좋아졌다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하고 또 물어보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였다.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는 몸이라 더운 날씨 탓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나의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고민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지쳤었다.** 이런 나의 지친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쳤고, '무슨 일이 있냐, 몸 상태는 괜찮냐?'라는 물음에 매번 '괜찮다. 날씨 때문에 잠을 못 자 피곤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웃는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해서 지친 나의 모습을 보는 그들도 몸 상태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시월의\_로산(ROSHAN)

시월의 마지막 주에 떠나게 된 캠프에서도 나의 고민과 나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캠프의 좋은 자연 경치 속에서 모두가 즐거워할 때, 나는 혼자 조용히 시간을 가지고 나에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조금 더 나를 보고자,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움직이고 싶었다. 그런데 나의 이런 바람에 달갑지 않은 한 명의 불청객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왔다.

알쉬야(Arshiya, 나는 알쉬로 부른다.)는 초지일관 나를 처음 볼 때부터 이 말을 했었다. **“로산 웃어”**. 알쉬는 캠프에서 자기의 양 손 중 두 손가락을 이용해 집게 손가락을 만들어 내 양 볼을 꼬집어 웃는 모습으로 만들었고, 내가 자기 사진을 찍어 줄 때 마다 자기처럼 이를 보이면서 웃으라면서 자신의 웃는 모습을 따라 하라고 강요를 하였고, 혼자 떨어져 있는 모습을 잡힐 때 자기의 옆에 오라면서 **“로산, 스마일~!”** 라고 자기의 입꼬리를 늘리면서 웃는 모습을 보이고 따라 할 때까지 계속 자기의 입꼬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항상 마주칠 때 마다 **“로산 계속 웃어(Roshan! Keep Smiling~!).”** 라는 말을 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되는 저녁에, 왜 유독 나에게 웃는 것을 강요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었을 때 **‘웃지 않을 때, 너는 너가 아니야. 너는 웃을 때가 너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계속 웃어!’** 라는 이 친구의 흔들림 없는 눈과 당찬 말에 말없이 몇 분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를 안지 얼마 안 된 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알고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 어이 없어서 웃고, 다른 사람은 오기 어려워 한 나를 끝까지 같은 말로 계속 자기 곁으로 끌어 당겨 준 것에 고마워서 웃고, 그 동안 복잡했던 모든 것들이 잠시나마 머릿속에서 지워져 웃으면서 동시에 속으로 울었다. 혼자서 많은 것을 감당해 내려고 했지만, 결국 혼자 아파했었다는 것에 스스로 인정을 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시월의\_로산(ROSHAN)

알쉬의 말에 힘을 얻어서 남은 캠프 일정 동안, 어색하지만 조금씩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주위 사람에게 다가갔고, 갑작스럽게 변한 나의 모습에 주위에서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곧 자기 옆으로 나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나의 웃음은 어색에서 기분 좋은 웃음으로 바뀌었다. 캠프의 마지막 날, **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웃으면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 곳에서 나의 고민들을 다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또 다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하지만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든 것이 안 풀리더라도 그냥 **“웃어버리자, 웃어버리자. 일단 웃고, 그 고민들을 어느 정도는 버리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서는 상당히 어렵고, 누군가는 믿기 어렵겠지만, 종종 웃는 연습을 하고 있다. 고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알쉬를 떠올리고 억지로 양쪽의 입꼬리를 올리면서 웃는 모습을 만든다. 이에 대한 후유증이 생겼다면, 알쉬(또는 알쉬야)라는 말만 들어도 자동으로 웃게 되는 **“알쉬 = 자동반사웃음”**이 생겼다.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것들을 알아가고 채워가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보내기를 노력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꼭 달성하고 싶은, 새롭게 정한 결심을 마지막으로 **시월을 정리한다.**

**“내 인생의 황금기 같은 시간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그리고 웃으면서 돌아가자!”**





# 시월의 찬드(Chand)

거침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 몸까지 버티지 못하게 한 것일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정신은 정말 괜찮은데, 온몸이 쭈시고 열이 났다. 팀원들이 말렸지만 약을 먹고 다시 활동에 들어가니 아픈 것은 잊어버리고 상황에 몰입됐다. 일정이 끝나고 기차에 몸을 맡기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꼬박 4일을 누워있었다.



# 시월의 찬드(Chand)



JUHU에서 체커스(체스같은 보드게임)를 하는 각 팀원들의 스타일을 보면 성격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누구는 자신의 것을 다 지키려고 하고, 누구는 너무 조심해 했다. 나는 가장 빨리 게임이 진행될 만큼 과감하게 밀고 나갔다. 그러다 보니 한쪽에 신경을 많이 써 다른 쪽을 보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나의 성격을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끔 여기서 나의 모습을 보면 체커스 스타일과 똑같다. 4일을 누워있을 때도 머리와 몸은 따로 움직였다. 머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고 몸은 그걸 절대 버틸 수 없었다. 꼭 무엇에 홀린 것처럼 활동하며 10월은 정신 없이 지나갔다. 10월의 나의 개인적인 목표는 배움 이었다.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 가장 준비 없이 온 나였고 그 외에도 부족한 것이 많아 10월은 배움의 달로 지내려고 했었다. 하지만 배움을 생각하기 전에 10월의 내가 아직 정리되지 않는다. 뿌듯함도 아쉬움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11월의 목표는 목표다. 인도 삶의 반을 정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해보려 한다. 더욱더 나를 쏟고 싶다.**



# 시월의\_쿠시(KHUSHI)

오늘만큼은 반성을 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가고 싶지만 잊고 살았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쉬이 그럴 수가 없다. 상대방과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나를 참 많이 드러낸 한 달인 것 같다. 돌이켜보니까 그렇다. 삶과 인간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는 롤러코스터 같은 내 감정상태와 함께 와르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기의 반복이었다. 제대로 세우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내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데 의욕을 잃었었다. 저지르고 난 후에 생기는 너무 많은 자책과 반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 나의 습성들로 인한 반복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 같다. 똑바로 반성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가는 능력이 여전히 내게 너무 어렵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아이들을 만나고, 주어진 일을 하고, 팀원들과 투닥투닥 지내 오면서 인간 윤희경으로서, 라온아띠로서, 건전한 아시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내뿜어야 하는 에너지는 적지 않을 것이다. 잘한 것을 되돌아보지 않고 반성 속에 하루를 물어버리는 일은 나를 벼랑 끝에 세우는 일이었다. 스스로 돌아보는 일이 잘 안 되니 다른 사람을 많이 의존한 것 같다. 잘한 일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 썸이면 칭찬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네, 화가 나거나 토라지게 된다. 내가 못했다고 느끼는 일이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나로 충분하니, 다른 사람에게 그런 소릴 들을까봐 신경이 곤두선다. 다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느새 화가 나 있는 나를 마주해야 했을 것이다.



# 시월의\_쿠시(KHUSHI)

10월은 캠페인과 캠프로 인해 일이 많은 달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많은 일을 해야만 했다. 내가 직접 찾아서 하기도 했고, 돌이켜보면 사랑하기에 기꺼이 했던 일들이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일도 잘한 것으로 가져가지 못 했다. 신경을 곤두세우며 그런 척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나를 알아보는 눈짓이나 건네는 말이라고 오해했다. 하지만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동의한 목적 하에서 열심히 일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과 배워 나가는 것이다.** 빈곤퇴치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나는 어떤 희열을 느낀 것 같다. 내가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 삶의 울타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꺼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 순간이 너무 가슴 벅찼다. 욕심이 나서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너무 무관심하거나 냉정하지 않다는 사실도 배웠다. 설사 누군가 냉정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알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 사람을 목격하는 일로 나는 완전히 행복했다. 빈곤퇴치 캠페인은 **나를 넘어서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내 꿈의 실현이기도 하다. 부족했지만 가슴 뛰는 순간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덧붙이자면 이 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내 삶에 많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아이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떤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남은 달 동안 열심히 양쪽 끈을 당겨보고 싶다.**



# 시월의\_지야(JIYA)

그러나 이제는 안다. 내가 살아야 할 삶은, 닐시의 호수에서의 수영과 같은 몇 가지 따스한 추억으로 도시에서의 여행을 건디는 것도, 슬픈 도시를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좋은 도시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시가 내가 동경하는 곳들처럼 따스한 온도를 되찾는 것. 닐시에서의 날을 뒤로하고 몸바이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쉽더라도 멈추지 않은 것처럼 내가 삶을 이어나가야 할 곳은 도시라는 것을.



**내가 살아갈 곳은 도시다.** 하늘이 푸르게 부서지는 닐시의 호수에서 꿈만 같았던 캠프를 끝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 그곳에서의 삶이란 나에게 정말 꿈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너무 아름답지만, 나는 이곳에서 살 수 없다. 나는 돌아가야만 한다, 도시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도시와 나 사이를 잇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마치 가족 같다고 혹은 사랑 같다고 해야 할까. 나에게 도시는 그리고 서울은.

수백 번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도시에 대한 미움은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안타까움이었을까.

몸바이에 오고 또다시 서울과 같은 도시의 잔인함 속에 상처 입어야했을 때, 동티모르의 하나뿐인 우체국에 가지 못하는, 방글라데시 한 숲 속의 자전거 길에 있지 않은, 캄보디아의 작은 마을의 사람들과 부침개를 나눌 수 없는 나의 운명에 화가 나기도 했다. 좋은 공동체에 대한 답은 도시화 이전 인류의 과거 속에 이미 있다는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말해주듯이, 아직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작은 마을 속에서 도시가 잃어버린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느낄 기회가 내 인생에 주어지기를 바랐다. 그 경험이 내 도시에서의 여행을 건디게 해줄 것이라고, 혹은 도시가 아닌 삶을 선택할 용기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 시월의\_지야(JIYA)

재미있게도 다시 돌아올 용기를 얻게 해준 것은 날시가 아니라 서울보다도 더 거대한 이 도시, 뭄바이이다. 이 잔인한 도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사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인도의 평범한 사람들, 무엇보다도 조건 없는 아이들의 미소가 가진 뜨거운 온도가 나를 반성희망으로 끓어오르게 한다. 뭄바이에는 이토록 따스한 사람들이 가득한데, 서울에는 없었던가. 없었다면, 나는 서울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땠던가. 서울에 살고 있는 나를 돌아본다. 큰 변화가 없음에 좌절하던 나, 사람들을 경계하며 걷던 나, 단 한번도 누구에게 아무 이유없이 웃은 적이 없었던 나.

항상 구조를 탓해왔다. 탓이 아니라 정말로, 사회구조는 우리 삶에 무서운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너무나 단단했었다. 그러나 다시 곰곰히 생각해본다. 사람 역시 이 구조를 구성하는 하나가 아니던가. 나도, 너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작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나의 도시의 사람들을 믿고,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단단한 구조의 벽을 허무는 변화의 시작일 것이다.

나의 도시로 돌아가기까지 남은 석 달, 나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가진 힘을 배워갈 기회를 얻었음에 감사하고, 열심히 배워갈 것이다.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다. 내가 또다시 도시에 온 것은 잔인한 운명이라기보다 신의 아름다운 뜻이었음을.



# 시월의\_지야(JIYA)

추신)

아무래도 아직 품게 되지 얼마 안된 뜨거움이라  
글로 다듬어 내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의 울림을 다스리기에는 형편없는  
글솜씨 때문에 서툰고 거친 글이 미안하다.

대신에 나의 마을, 서울 속에서 함께 어깨를 기대고 살아갈  
나의 친구들과  
라운아띠들에게 덤덤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짧은 글을 덧붙인다.

나에게는 끄적거린 시들이 남아 있고 그것들은  
따듯하고 축축하고 별 볼 일 없을 테지만 내게는 반쯤  
녹아버린 주석주전자기 남아 있고 술을 담을 수는  
없지만 그걸 바라보는 내 퀘한 눈이 있고 두 눈 속에는  
네가 있고 청회색 담벼락에 머리를 짓이기는 붉은  
페인트 붓처럼 열정으로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헝클어놓은 네가 있고 젖은 뼈들이 있고 움직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노래가 있고 아침에 면도한 얼굴로  
말끔하게 서 있는 희망이 있고 오후가 되면 거뭇거뭇  
올라오는 수염 같은 절망이 있고 오 또다시 아침,  
부서질 마음의 선박과 원자로들이, 잘 묶인 매듭처럼  
반드시 풀리는 나의 죽음이 남아 있고

- 남아 있는 것들 / 진은영  
(2014 문학과사회 가을호)





이 정도면  
우리 느낌,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 산띠 사진전



# 산띠 사진전

# 산띠 사진전\_일상 속의 산띠

같이 보자



친구들과 농구 한판



빨리와~!! ㅋㅋ



멍 때리는 지야



거실 괴물 로산



지하철에서 지야 로산





찬드, 머리 손질한 날



찬드는 어딜 볼까!?



로산은 어딜 볼까?!



찬드 침대 위에서 야룻포즈



장난꾸러기, 지야



# 산띠 사진전

# 산띠 사진전\_일상 속의 산띠



# 산띠 사진전

# 산띠 사진전\_친구들과 함께

YMCA 친구들!!

라파엘과 함께

산띠쉬와 함께

진슨과 함께

라파엘과 함께

멜빈과 Y 친구들

바스커와 함께



# 산띠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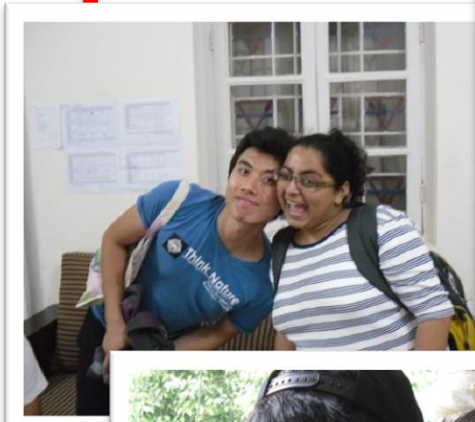
# 산띠 사진전\_친구들과 함께

안데리 Y의 친구들



# 산띠 사진전

# 산띠 사진전\_친구들과 함께



캠ป์에서 친구들과





# 산띠 사진전

# 산띠 사진전\_인도 속으로!



로띠(빵)와 치킨 커리

밴드라 버스 정류소



간디 코스프레



이동 도서관



카जू-디왈리 과자



하리 크리슈나 신전



교회 앞 양초 가게



설탕 주스 제작과정



주후 비치 가게



천연 비누 샵



인도 신전



봤으면  
**댓글** 정도는  
남겨줘야지?!  
안 그럼  
**양아치**야?!

# 산띠 사진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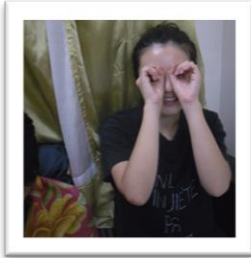
언냐, 잘  
나오고  
있겠지?

몰라, 일단  
웃어..

무차별 저격!! 넌 이미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 산띠 사진전쟁

## 로산의 사진전쟁



쿠시표 배트맨~~!



우쭈쭈~!



강냉이 털릴 준비 하세요~!

## 쿠시의 사진전쟁



라면의 맛

## 지야의 사진전쟁



으흥 마시평



쿠시 나히 쿠슈~!  
(행복이는 안 행복해~!)



이거 놔줘 바이야2

## 찬드의 사진전쟁



뭘봐!



THE END : DANAYAD, :D.

끝 : 고마워, ^^.